

대학 지원 지자체 이양 부작용 우려

정부, 2025년부터 전국 실시...부실 운영 대학 구조개혁 강력 추진 "자율성 위장한 떠넘기기"...전문성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 비판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로의 대학 지원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반발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대학 재정 지원 권한 지자체에 이양·위임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사랑장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연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 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 경쟁력 키워야 생존

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여파 속에서 대학들도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더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대학에는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대학에는 '퇴로'를 열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 신설·정원 조정 등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원 대학을 가려내는 수단으로 활용

했던 대학 기본진단 사업 역시 2025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2025년부터는 정부가 아닌 대학 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사학진흥재단의 평가인증, 재정진단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대학의 경쟁력, 특히 학생 수 감소는 물론 지역소멸 위기 속에 점차 힘을 잃어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주려면 중앙정부보다 지역을 더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길을 열어주는 게 가장 높은 방법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한다.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인 교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학과 구조조정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전환 등 '퇴로'를 확보해줄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 계획은 교육기관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는 지적과 함께 법 제·개정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협의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일례로 지자체로의 대학 지원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교육부의 신년 업무계획 발표 직후 논평을 내 "수도권과 지방의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총체적인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다가 교육부가 다 떠안는 형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호남대, 미국 KIC와 글로벌 교류협력 MOU

인재육성·투자유치...실리콘밸리 코워킹스페이스서 인턴십 추진

세계 최대 IT·가전박람회인 'CES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2023'에 호남대학교 참관단을 이끌고 있는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장에서 미국 KIC (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글로벌혁신센터 배정용 센터장과 글로벌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서 호남대학교와 KIC는 글로벌 기업 인재 육성과 기업투자유치 협력에 대한 협약을 맺고 글로벌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상철 총장은 협약식에서 "글로벌 인재양

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정용 센터장은 "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해 호남대학교와 2023년 하계 인턴십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남대학교 박상철 총장, 이성오 기획처장, 정영기 교무처장 겸 AI융합사업단장, 손완이 국제교류처장, 윤인도 산학협력단장, 정제평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장 겸 LINC3.0부단장, 미래자동차학부 이은경 교수와 광주테크노파크 최은희 팀장, 광주시 박선희 산업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 대전환...창의력·포용력 갖춘 미래인재 육성한다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마련 미래·진로 교육, 현장 지원 강화

전남교육청이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창의력과 포용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 구축, 전남형 교육자치 기반 마련, 학생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국 미래인재과'를 '정책국 미래교육과'로 개편하고, '독서인문교육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독서교육을 기반으로 전남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국 '혁신교육과'는 '교육자치과'로 개편해 민·관·산·학 협력 및 학령인구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주도할 예정이다.

교육국에는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해 '진로교육과'를 신설해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까지 총괄하는 통합시스템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분청 팀 단위로 '독서인문교육' 외에 '빅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전시회 전남도교육청이 9일 청사 1층 갤러리에서 2021-2022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데이터분석', '방과후돌봄교육', '진로교육', '성인지교육', '민주시설지원' 등 6개 팀을 신설하고, 3팀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분청 조직은 기존 '3국 2관 1단 14과 61팀'에서 '3국 2관 1단 15과 64팀'으로 변경된다. 직속기관은 2부 5팀을 신설했다. 기관명 앞에 '전남도교육청'을 표기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했으며, 권역별 거점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했다.

22개 교육지원청은 8팀 신설 등을 통해 학교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학교 환경위생 및 급식 업무 지원을 위해 '보건급식팀'을 확대했고, 학교 정보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정보화지원팀'을 확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조직개편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련 조례를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동신대, 방사선사 2년 연속 100% 합격률

신현준 학생 전국 차석 합격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2년 연속 100% 합격률과 전국 차석 합격자 배출이라는 성과를 거두 화제다.

동신대에 따르면 방사선학과 4학년 41명이 제 50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은 75%다.

특히 신현준(24·사진) 학생은 250점 만점에 247점을 받아 전국 차석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미국 국적의 김미나(42)씨와 만학도 김윤철(46)씨 등 편입생 5명도 이번 국가시험에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49회에 이어 2년 연속 100% 합격률을 올린 동신대 방사선학과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합격률 100% 등 매년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전국 수석을 배출한 바 있다.

높은 합격률의 비결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다. 1학년부부터 4학년까지 집중케어 프로그램, 학습반응팀, 전공 멘토-멘티, 스터디 지정교수, 그룹 스터디, 국가시험 전용공부방 등을 단계



별로 운영하고 있다. 또 국가시험 과목별로 개인 특강을 진행하고,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치르며 한 뒤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개인 면담을 갖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동신대 송중남 방사선학과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국가시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